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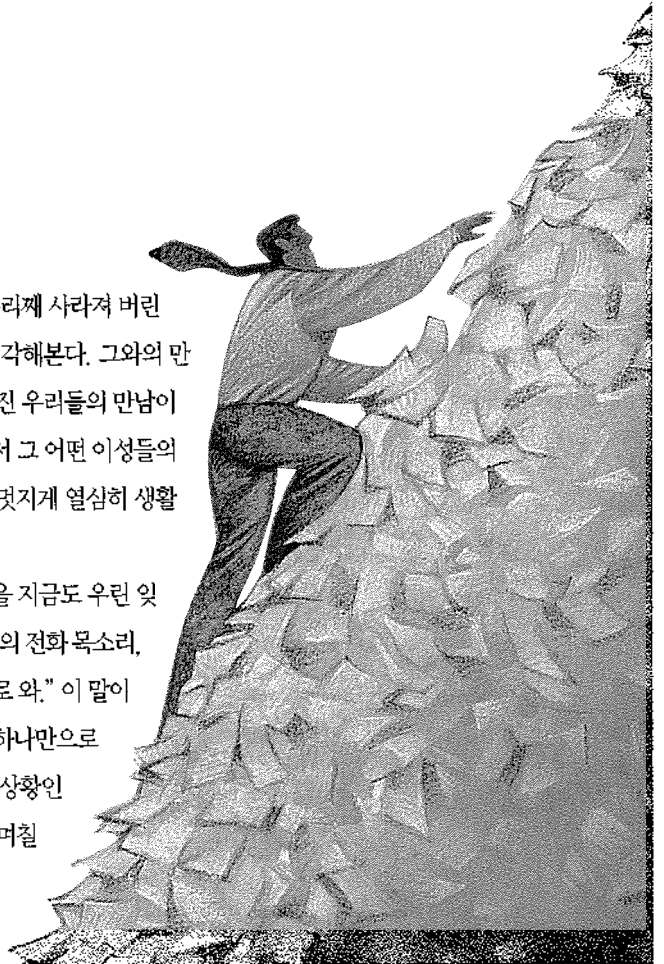
2005년에 동시대 작가의 김영인 문예공모에서 두문 부문
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작인 이 작품은 동요적 풍경을 통해 인생의
상을 묘사하였다. 2005년 김예공모는 www.d.or.kr
에서 볼 수 있다.

희망을 바라보고사는 삶

김정훈 *김영인 기증

급하게 걸려온 전화 벨소리와 함께 꿈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다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본다. 그와의 만
남도 15년이 다되어 가는 것 같다. 세상의 눈을 등진 우리들의 만남이
있지만 우린 누구보다 역경을 딛고 행복하게 만나서 그 어떤 이성들의
커플보다 행복하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멋지게 열심히 생활
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불거진 일생일대의 두려웠던 그 순간을 지금도 우린 잊
지 못한다. 감염이 되어 버렸다는 소식에 떨리던 그의 전화 목소리,
지금도 난 잊혀지질 않는다. “나 무서워 빨리 집으로 와.” 이 말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귓가에 쟁쟁한 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꿈을 접어아만 하는 상황인
가 하고 불안해하며 마지막인가 하는 비통함속에 며칠
을 두문불출하였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공포의 날이 하루하루 지나고 숨이 막힐 듯한 서로의 행동에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그가 혹시 자살이나 하지 않나 이런 생각과 그는 아마도 나도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로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감염이 된 사람들은 알겠지만 감염된 사람의 주변사람까지 검사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검사하지는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을 것이다. 나 또한 겁이 났던 건 사실이고 어떤 생각도 못하던 차에 그가 용기를 내서 검사하자고 몇 달 뒤에 얘기를 꺼냈다 물론 보건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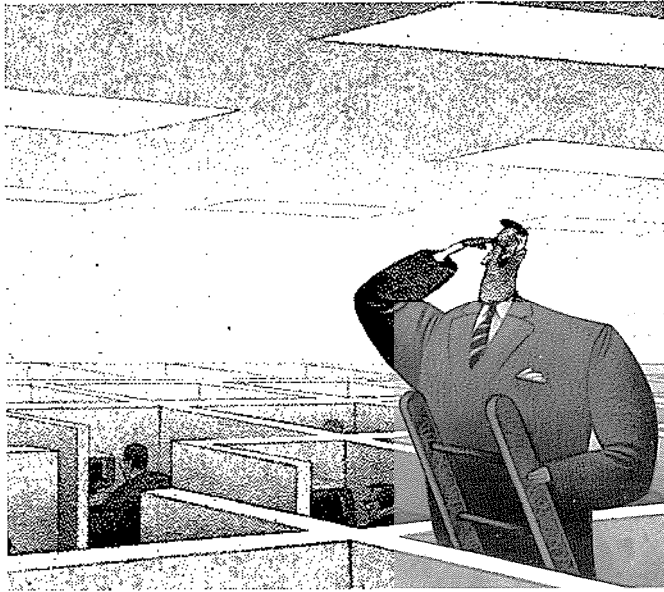
검사하고 결과가 수일 후에 나오기까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많은 생각과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비감염이란 사실, 그러나 난 그 결과를 통보받은 순간 희비가 교차됐다. 난 감염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두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웠고 별다른 말없이 또 시간이 흘러갔다. 그는 나에게 말문을 열었다. 난 감염되지 않았으니 서로의 갈 길을 다시 가자고. 난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원망이 쏟아졌고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많은 날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보통사람들은 해보지 못할 생각을 우린 많은 시간 동안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의 말도 원망에 말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로의 눈만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로 눈치만 보다 난 그에게 말을 꺼냈다. 난 그에게 감염됐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어떻게 나만 편하게 산다고 이런 걸로 이별을 생각한다니? 그 전의 어렵게 만나서 많은 걸 극복하고 살았던 그 시간이 아쉬웠다. 그리고 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과 그를 저대로 버려두고 나 혼자만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는 없었다. 우린 여러 생각을 한 뒤에 굳게 다시 맹세하고 한번 사는 데까지 살아 보자고 다짐했다.

난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되는 일은 없었고 갈수록 전만 못한 생활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모든 일은 잘되지 않았고 상황이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

다. 나의 실수와 그의 실수의 반복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마음 아닌 정신까지 피폐해지게 된 생활이 지속 되어왔다. 모든 게 다 나의 잘못이었지만 서로에게 원망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돼 버렸다.

난 그가 뭘 생각을 하고 있나 물어보고 싶어도 일부러 묻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굳힌 지 오래이고 그의 눈도 감염인이라는 눈빛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서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십여 년의 세월이 무사히 보내 왔지만, 어느 날 쓰러진 그를 보고서 우리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 내가 못나서 힘든 일을 해서 발병도 남보다 빨랐다고 생각이 된다.

출근하다 말고 식은땀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보고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생활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면서도 약을 먹으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생활을 지속해서 너무 좋지 않은 상태까지 방관한 상태였다. 난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 한번이라도 그가 난 감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아무 말 못하고 지내온 사실이 너무 후회되었다. 그의 성격이 강함으로 인해서 한 번도 난 감염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고 온 날도 난 아무것도 물어 보질 않았었다. 묻는 자체가 나도 두렵고 그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생각에 그냥 눈으로 말하고 말아버린 그 순간들이 지금은 많은 후회로 남아 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하고 상태를 알게 된 나는 전에도 그랬지만 의학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치료제 백신 이런 뉴스가 혹시나 나오나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별 다른 희소식은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았다.

그는 입원한 후부터 다른 평상시 일은 못하게 되었고 협회의 일원으로 협회 단체에 자주 들르더니 지금은 협회의 주축 멤버로 자기의 온 정성을 거기에 쏟고 있는 거 같다.

오래 전엔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나 이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참 저 사람 강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나도 몰랐던 그의 한 부분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난 그가 대견하다 하는 생각을 한다.

열성적으로 일하는 그를 보고 있자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끔 화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매번 똑같다. 나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죽어도 죽는다 말리지 마라, 어리지 않으면 더 빨리 갈지도 모른다, 항시 이렇게 말하는 그를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난 단지 그의 맘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서 더 이상 그

가 하는 일이나 자신의 생각을 전혀 말하지 않고 그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생각과 행동에 나 자신도 따르게 되었다. 오히려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가 그보다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과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항상 그에게 미안함을 가진다.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감염인으로 생각하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감염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 걸 그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감염인들을 위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적어보고 싶다. 물론 감염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처음 순간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줄이고 아껴서 평상의 생활대로 자포자기 하지 말고 더 강해지라고 충고해 주고 싶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이니 아무리 감추고 싶더라도 자신 말고 가족이나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한명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말하기 어려운 건 알지만 용기를 내서 그래도 자신 말고는 누군가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감염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감히 말하고 싶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가족이나 그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계속>